

한 망명자의 삶을 통과한 역사

홍세화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읽고

공지영
소설가

서울에서 윤이상 음악제가 준비되고 있을 때, 대한민국 행정당국의 서류에는 윤이상의 입국불가라는 서류에 줄줄이 결재도장이 찍히고 있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예술가에게 조국이 중요한가 아닌가가 결재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래서 그 노예술가는 끝내 그 조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그때 신문에만 썩어 있는 역사가 그 노예술가와 내 가슴을 동시에 짓밟고 가는 것을 느꼈다. 윤이상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홍세화의 글을 읽으면서 역시 같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홍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도 아니고 단지 빠리의 택시운전사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의 생애 속으로 통과한 역사가, 통과하면서 그의 한 생애를 찢어지게 만든 분단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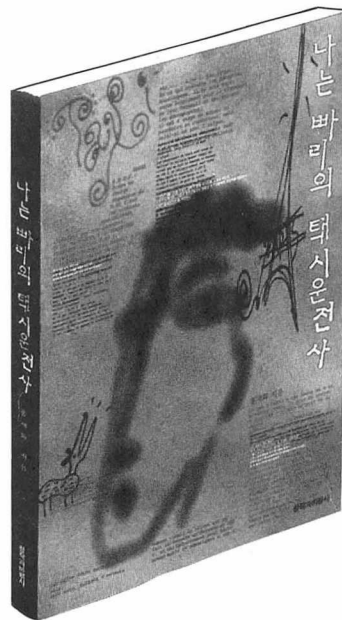
우선 그는 망명자이다. 제네바 협정에 의거해 그가 발급받은 여행문서에는 이 지구상에서 “꼬레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 한국에서 살 수 없어 망명을 했으므로 그것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다. 그는 그 합리적인 결정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는 그 모순을 살아가고 있다.

한 택시운전사의 자전소설이 나를 울린다. 그는 젊었을 적에 다른 젊은이들처럼 이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고픈 열정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열정 때문에 그는 평생 조국명을 밝히 못하는 망명객 신세가 돼버렸다. 빠리에서의 나날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더 쓸쓸하게 하고 쓸쓸함이 깊어질수록 고국의 친구들이 눈물겹게 보고싶다고 고백한다.

이 책은 사회를 개혁해보고 싶던 한 평범한 젊은이가 어떻게 망명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망명자는 또 어떻게 택시운전사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요즘 유행하는 ‘나는 이렇게 성공했소’ 류의 자서전과는 분명한 희곡 그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어찌보면 소위 성공하지도 못한 그의 기록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기록들 속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대부분의 삶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책에는 그렇게 딱딱한 내용만 썩어



있는 것은 아니다. 파리의 텅빈 밤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광경은 그가 외로운 만큼 아름답다.

“텅빈 거리... 잠자는 아파트, 창문으로 불빛이 새나오는데 몇개인지 세어본다. 하늘에서 못 찾은 별을 세듯, 하나, 둘, 셋, 넷 아 그중 하나가 꺼진다...불현듯 왜 내가 여기 있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밤중에 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책을 덮었을 때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망명한 이유가 단지 정권을 가진 이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이며,

한국에는 그러한 이유로 40년이 넘도록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여자친구 실비가 하던 말이 내 머리속을 뱅뱅 돌았다.

“그러면 당신들은 사람들도 아니네요... 당신 나라 야당은 그럼 무엇을 하나요. 교회와 지식인과 학생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홍세화는 한국의 실정은 어렵다며 그녀에게 화를 낸다. 머리로는 그녀가 옳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화를 내는 홍세화를 지지한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든 비난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을 때 책상 앞의 작은 거울에 문득 비추인 내 입술은 묻고 있었다.

“당신들은 사람들도 아니네요...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지식인은, 학생들은, 소설가들은 혹은 예술가들은” 하고.

창작과비평사/A5신/324면/6500원

출판신입·경력사원모집

21세기 대학출판문화를 선도할 역량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정보통신시대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인원	응시자격
사업팀장 (부장급)	0명	① 4년제 대학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능력 소지자 ② 출판 또는 관련업계 10년 이상의 유경력자
출판기획	0명	① 대학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능력 소지자
출판관리	0명	② 대학교재·학술도서 분야 유경력자 우대
출판영업	0명	③ 출판기획분야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환영

2. 전형방법 : ① 제 1 차 : 서류전형
② 제 2 차 : 면접 및 신체검사(1차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 1부(사진 부착, 희망분야 기재)
②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에 한함)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자기소개서 1부
⑤ 추천서 1부

4. 제출기한 : 1995년 5월 4일까지(당일 소인분 유효)

5. 제출방법 : 우편제출에 한함(전화문의 및 직접제출 사절)

6. 제출처 : ☎110-7191 서울특별시 중로구 동숭동 169번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인사담당자